

독서 지도안_ <바람숲 토끼 가족> 그림책 시리즈

랄라의 첫 심부름_ 가을 시장 이야기

글·그림 카지리 미나코 | 옮김 최은영 | 출판사 천개의바람

판형 260*184(양장) | 페이지 40쪽 | 가격 14,000원



랄라가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혼자서 시장에 가게 됐어요. 엄마는 랄라에게 시장에서 사와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려 주었지요. 숲을 지나 시장에 간 랄라. 먼저 우체국으로 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보낼 선물을 부쳤어요. 그리고 털실 가게에 가서 털실을 사고, 서점에 가서 책도 샀지요. 부지런히 움직인 랄라는 지치고 배가 고파졌어요. 광장 의자에 앉아 잠깐 쉰다는 게 그만 깜빡 잠들고 말았지요. 눈을 떴을 땐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. 과연 랄라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?

독서 활동 목표 ;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웁니다

● 그림책을 맛있게 골격! ●

◆ 표지 맛보기

- 1) 표지 그림 속 토끼의 옷차림과 풍경을 볼 때, 어떤 계절인 것 같나요?
- 2) 나는 어떤 심부름을 할 수 있고, 해 보고 싶은지 말해 보세요.

◆ 본문 삼키기



- 1) 그림 속 서점 주인은 누구인지 맞춰 보세요.
- 2) 랄라는 책을 두 권 샀어요. 한 권은 자신이 읽을 책이고 다른 한 권은 누구의 것일까요?
- 3) 그림 속에서 책을 사거나 보러 온 동물은 모두 몇 마리인가요?

◆ 이야기 소화시키기

- 1) 랄라가 집으로 돌아갈 때 어두운 숲이 갑자기 밝아졌어요. 왜 그랬는지 말해 보세요.

2) 랄라처럼 혼자서 위험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고 말해 보세요.